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문화학과	이름	
파견국가	체코(Czech Republic)	파견도시	올로모우츠(Olomouc)
파견대학	Palacky University Olomouc	파견기간	2017.09.07-2018.06.17
귀국여부	귀국완료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Palacky University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기차로 약 두 시간 떨어진 모라비아 지방, 올로모우츠(Olomouc) 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Palacky 대학은 하나의 큰 캠퍼스의 개념이 아니고 시내 곳곳에 대학 건물이 떨어져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Palacky 대학의 Faculty of Arts와만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파견을 가는 학생 분들 역시 Faculty of Arts 건물에서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 이 faculty 건물은 하나가 아닌 4개 이상으로 departments 마다 나뉘어있어서 영어 수업, 역사 수업 등 수업마다 건물을 옮겨 다니셔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건물마다 거리가 꽤 있어서 이동시간이 대략 짧게는 도보 5분 길게는 10-15분정도 걸립니다. 첫 학기에는 건물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에 대학 건물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보기에는 시설이 조금 구식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내부시설은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2018년) Department of History 건물 내부를 새로 보수공사 했기 때문에 시설이 좋아진 편입니다. 또 Palacky 대학은 '비즈니스 한국어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 본인 의지만 있다면 비즈니스 한국어과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습니다.</p>

<p>2017-2학기 2018-1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Business English 1, 2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고 기말 시험(Written Test)이 있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관련 용어와 텍스트를 배우고 문법 교재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법을 익힙니다. 매주 교재 숙제를 내주시는데 다음 수업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며 답을 말하게 시키기 때문에 숙제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업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숙제 잘해가시고 시험을 잘 보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Central European Culture and Society 영어로 진행되며 동유럽 국가들(체코, 헝가리, 폴란드 중심)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을 폭넓게 배우는 수업입니다. 격주 수업이라 수업이 없는 주가 있기 때문에 수업 일정을 잘 체크해야 하고 출석과 영화 감상문 과제를 성실히 하면 패스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영화와 시각자료를 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체감상 수업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 학기 동안 동유럽이라는 곳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업이라 추천합니다.</p> <p>-Chapters from Modern American Literature 미국인 교수님이 진행하는 미국 아동문학 수업이며 매주 한 명의 작가, 그의 작품들에 대해 배웁니다. 중간, 기말 시험이 없지만 수업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한번 해야 하고 수업 마지막 주에 체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회에도 참여해야 패스할 수 있습니다.</p> <p>-Central European History since 1945 동유럽 문화와 사회 수업과 같은 교수님이 진행하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의 역사를 배웁니다. 객관식 중간 시험, 서술형 기말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역사 수업이다 보니 외우고 이해할 것이 많고 수업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p> <p>-Intensive course of Czech for Foreign Students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체코어 수업입니다. 레벨 별로 그리고 교수님에 따라 요일과 시간이 달라서 수강신청 때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체코어가 어렵긴 했지만 체코에서 생활하는 동안 영어만 쓰기에는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간단한 표현이라도 배우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p>-Intensive course of Czech for Foreign Students Exam 위 수업의 추가 학점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말하기 시험입니다. 교수님마다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았던 시험은 대화 형식으로</p>
-------------------------------------	---

	<p>진행했습니다.</p> <p>-Contemporary Czech Theater 체코의 현대 연극, 공연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에는 이론을 배우고, 따로 또 올로모우츠 시내에 있는 극장에서 모여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체코의 현대 대중문화와 예술을 얹게나마 배울 수 있습니다. 레포트 과제가 두어 번 있지만 요구하시는 분량이 길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매주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좋은 수업이었습니다.</p> <p>-Crusades 중세 카톨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전공 과목으로 들은 수업이었고, 텍스트를 미리 읽어오면 수업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 교수님, 학생들과 토론을 합니다. 수강하는 인원이 매우 소수이고 토론 형식 수업에 있어서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수업입니다. Credit을 받으려면 기말시험(Written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p> <p>-Media, Culture, and Society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중간 시험은 없지만 학기말에 발표 한번과 객관식 기말시험을 봅니다. 수업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credit을 얻으려면 기말 시험을 꼭 패스해야 합니다. 기말 시험은 단답형이지만 수업 때 들은 내용보다는 난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자료들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개강 한 주 전 5일동안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내, 매일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첫날은 오전에 강당에 모여 수강신청 방법, 학생증 발급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을 전달 받고 그 이후 비자 발급 유무를 기준으로 먼저 그룹을 나눕니다. (진행상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비자발급을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 이미 비자가 있어 외국인 경찰서에서 신고만 받아도 되는 학생들을 나누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또 국적별로 그룹을 나누어 소규모로 진행하는 캠퍼스 투어 외에 오후에는 친목도모를 위한 파티 등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파티는 참여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Practical Information이라고 써있는 부분 외에는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대학이 Palacky의 인문대(Faculty of Arts)와만 교류를 맺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인문대 내 교환학생 담당자이신 'Lenka Hanicakova' 분께 연락을 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을 드려도 빠르게 답장을 해주시고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잘 해결되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저는 올로모우츠에 9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있었는데 가을, 봄 날씨는 한국과 꽤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가을에는 일교차가 큰 한국과 달리 올로모우츠는 아침과 한낮이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루종일 춥고 감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은 한국이 유독 춥기 때문에 올로모우츠가 기온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고로 떨어진 날은 영하 7-8도 정도로 역시 춥고 한국에서 롱패딩과 온열매트를 가져오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겨울에 해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해가 오후 3시 반부터 지기 시작해 4시면 밤처럼 캄캄해지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또 올로모우츠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평소에 약간의 비도 맞기 싫어하신다면 우산을 늘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큰 비가 아닌 경우도 대개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잘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후디 혹은 방수가 되는 겔옷 정도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5월-6월 초까지는 크게 덥지 않습니다. 5월은 비가 오는 날이면 얇은 겔옷을 입을 정도로 쌀쌀해지는 편이고 6월은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도시 내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교환학생들도 주말에는 프라하 혹은 인근국가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캠퍼스와 기숙사, 길거리가 한국에 비하면 정말 매우 한산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면 한산함에 비해 치안이 매우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거주하는 동안 소매치기를 포함한 자잘한 사고를 일절 겪지 않았고 밤 11시 이후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딱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유럽의 도시들에 비하면 이곳은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는 'Envelopa' 4-6인실을 이용했습니다. 방 안에는 4명이 사용하는 공용 냉장고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 방에 침대 3개가 있지만 보통 2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4인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0층에는 리셉션, 층마다 공용 주방이 있으며 또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건물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층도 나누어 놓지 않기 때문에 복도나 주방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불편했던 점들은 위층이나 옆방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이는 것, 냉난방이 잘 되지 않는 것 (방 안에 에어컨, 선풍기가 없습니다. 난방기구도 라디에이터 하나뿐입니다.), 방충망이 없어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창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밤이면 날벌레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른 교환학생 친구에게 들은 결과 캠퍼스 내 다른 기숙사인 'Neredin'은 1인실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에는 편하지만 상대적으로 친구를 사귀기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Envelopa'는 다인실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룸메이트를 하며 영어도 더 자주 사용하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위치가 Faculty of Arts 수업을 듣는 건물들과 매우 가깝습니다. Neredin에서 생활할 경우 수업을 들으러, 또 가까운 쇼핑센터에 가기 위해서 트램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정기관을 사야하지만 Envelopa는 대부분이 도보 15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식사는 주로 제가 직접 해서 먹었습니다. 일단 체코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물가가 상대적으로 싼 편이고 식료품 가격에 비해 외식비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육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계란, 유제품의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도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위 품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주일 치 장을 보았을 때 약 400코루나 (한화 약 2만원)정도이고 생선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외식은 일반적인 파스타 혹은 수제버거 집은 메뉴 당 최소 120코루나 (6천원) 이상이고 맥도날드 빅맥 세트는 150코루나 (7천 5백원) 정도입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통학을 위해서 첫 학기는 트램 정기권을 사서 생활하였고 두 번째 학기는 필요할 때마다 트램 티켓을 끊었습니다. 정기권을 구입하면 트램에 탑승할 때마다 티켓을 편칭할 필요가 없고 불시에 검문이 있을 경우에만 소지하고 있는 정기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도시가 워낙 작다 보니 충분히 걸어서 다닐 정도이지만, 다만 본인이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개별로 트램티켓을 끊는 것 보다 확실히 정기권을 사는 것이 이득입니다. 트램 티켓은 학생 가격으로 1회권 14코루나입니다. 또 시내교통 수단으로는 트램과 버스, 택시가 있으며 택시는 거리 상관없이 100코루나 (약 5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온 택배를 우체국에서 받아 기숙사로 올 때 이용하시면 편합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13만 9천원	왕복
Fees	<p><i>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i></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보험료	<p><i>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i></p>	<p>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보험회사 것을 가입했습니다. (가격은 기간과 종류에 따라 상이함.)</p>
숙소	한 달 1600kc (약 8만원)	두 달 혹은 한 달씩 결제 가능
식비		
교통비		
책값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먼저 파견 나가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학교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부분만 챙겨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꼼꼼히 모든 것을 체크하면서, 실수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학교에서는 자매학교와 저를 연결시켜 줄 뿐이지 학교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비자 발급에 대한 것들, 현지 적응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저는 해외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출국 전 국제교류처 담당자 분들이 주시는 정보에만 의존하면서 어느 정도 학교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교와 자매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어 체코에 도착할 때까지 자매학교에서 보내는 모든 이메일을 받지 못했고 체코 도착 후 버디 프로그램도 신청도 못한 상태에서 수강신청도 가장 늦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었던 일이지만 '학교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도착 후 약 일주일을 혼란한 상태로 보내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체코 대학의 담당자님께서 실수를 인정하시고 잘 해결해 주셨지만, 언제나 '지금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바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후에 일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경험을 빌어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로모우츠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해가 빨리 지는 것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해를 겪어보니 겨우내 쉽게 우울해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가 떠있을 때 꾸준히 외출을 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을 저 역시 오기 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올로모우츠의 경우 베트남인을 제외한 동양인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 노인이나 어린 학생들이 빨리 쳐다보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될 텐데 이는 그분들이 정말 단지 신기해서 쳐다볼 뿐이기도 하고, 적어도 올로모우츠 내에서는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는 정말 적은 편이니 하나 하나에 속상해하기보다는 빨리 그 시선에 익숙해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저는 너무 멀지 않은 이상 도보 15분-20분 정도의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올로모우츠 시내에는 체코 내에서도 아름다운 축에 속한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 길도 익히고 풍경을 구경할 겸 한 학기는 정기권을 사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각할 위기에 대비에 트램 티켓을 미리 몇 장씩 사두시는 것을 추천하는데, 트램 티켓은 기숙사에서 좀 떨어진 트램 정류장 근처 노란색 티켓판매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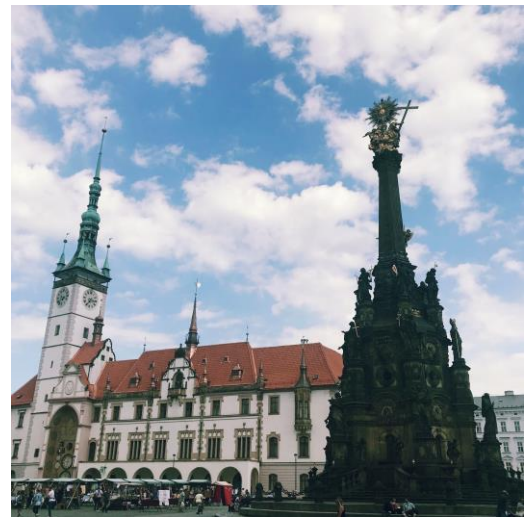
(분량 자유)

제가 교환학생을 갔던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1년정도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제 전공 관련한 강의를 듣는 것 또한 매우 가치 있고 유익한 경험이었으나, 유럽이라는 먼 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생활하게 된 것이 정말 많은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자기 주장도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과 쉽게 이야기도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생활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첫 몇 달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똑같이 움츠러들고 모든 것에 서툴렀지만, 이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외국이었기 때문에 더 눈치 보지 않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에 체코에서 지내는 동안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이 자신감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했을 때는 '외국에서도 개의치 않고, 혼자서도 잘 살았다'는 뿌듯함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교훈과 지혜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올로모우츠 성바츨라프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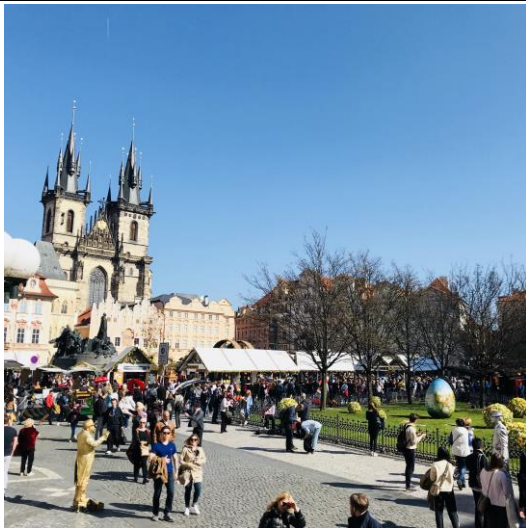
올로모우츠 호르니광장 (메인 광장)



올로모우츠 크리스마스 마켓



올로모우츠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리스, 트리 장식들)



프라하 부활절 마켓



Palacky University Faculty of Arts 건물
앞 (목련나무가 많아 봄에 예뻐)